

# 우리의 꿈, 오늘

약학대학



개척자의 의지로  
쌓아올린  
모두의 역사 위에  
내일을 선도하는  
혁신의  
새 동지를 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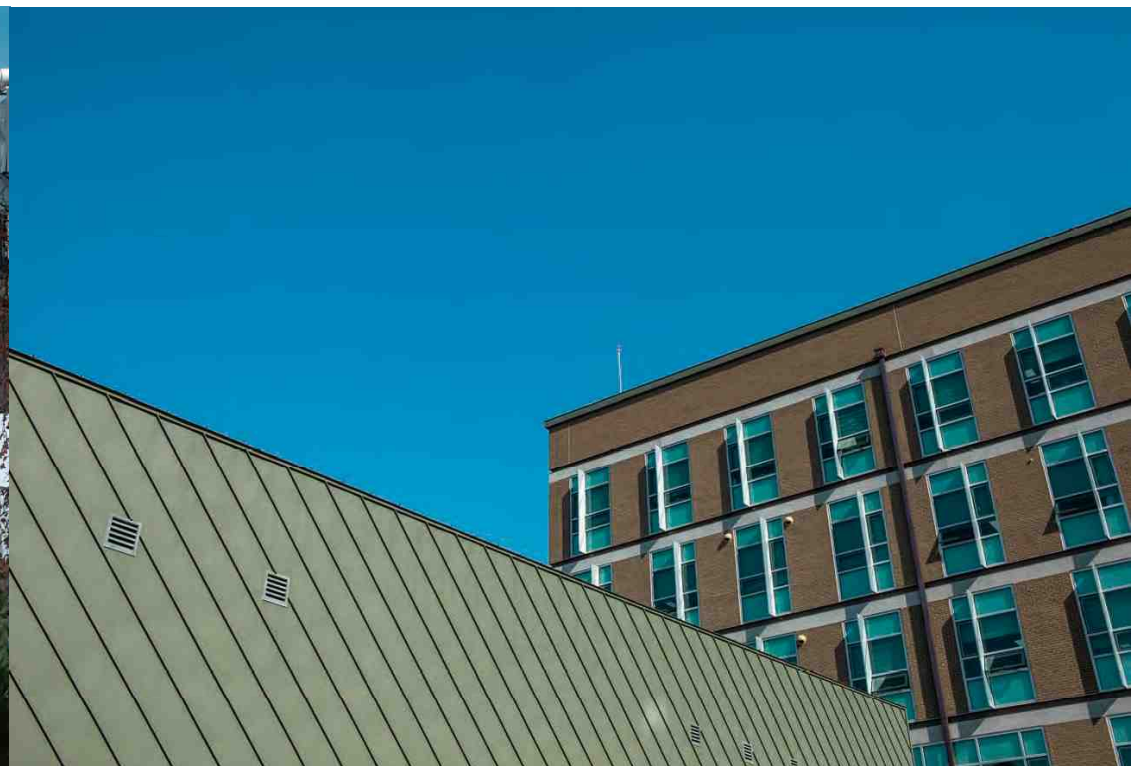
꿈. 오름.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건  
우리가 지나온 어제와  
우리가 함께 하는 오늘  
숫구치는 오름의 기억이  
오롯이 우리 안에 쌓여  
우리는 매일,  
숫아오르는 꿈을  
꾼다.



THE FRONTIER, SINCE 1954



THE PIONEER, FROM 2020



# 옛것을 익혀 새롭게 하다

생명과 물질의 경계를 아우르며  
21세기 뉴 노멀을 선도하는  
약학대학.  
1954년의 개척자 정신이  
2020년의 선도자 정신으로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연다.

THE FRONTIER,  
SINCE  
1954



전후 1954년 설립된 영남대학교 약학대학은 젊은 약학도들의 꿈과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격려하며 식지 않는 열정으로 일깨워주는 교수진, 그리고 세상 속으로 하나, 둘 그들의 길이 되어준 동문들의 든든하고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며, 지역을 넘어 위대한 꿈을 향해 나아가는 약학도들의 요람이 되었다.

2020년 5월, 신축 약학관에서 새로운 도약과 내일을 향한 새로운 도전의 첫걸음을 내딛는 영남대학교 약학대학, 1954년 개척자의 정신이 2020년 선도자의 정신으로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THE PIONEER,  
FROM  
2020





영남대학교 경산캠퍼스의 교정 깊숙한 곳에 첨단 건물 한 채가 우뚝 섰다. 바로 새로 지은 약학대학 건물이다. 새 건물 건너면 기존의 약학대학 건물은 오랜 역사를 가진 박물관처럼 고졸한 멋을 지닌 제 대한민국 약학계의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고 신축 건물에게 그 역할을 넘겼다.

영남대학교 약학대학은 1954년에 설립됐다. 이듬해 입학생을 받기 시작했으나 66년의 긴 역사를 가졌다. 그동안 학사 4,417명, 석사 464명, 박사 161명, 석박사통합과정 625명을 배출했으며 학계, 의학 관련 공공기관, 산업계 등에 진출해 국내 약학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지역 약사회는 영남대학교 약학대학 동문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연구적인 측면에서는 교수 1인당 논문수, 연구비 수주 등 전국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약학대학 건물 신축은 새로운 시대에 대비한 약학 교육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었으며 약학대학 동창회의 숙원사업이었다.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한 논의는 약 10년 전부터 있었고 성사시키는 데에는 동문들의 역할이 컸다. 동문들은 약 50억 원의 발전기금을 내었고 그중 약 21억 원이 약학대학 신축기금이었다. 그것이 지렛대가 돼 삼을 뜨게 된 것이다.

새로 지어진 약학대학 신축 건물은 지하1층~지상 5층 규모로 연면적 9,429㎡, 총 공사비 154억 원이 들었다. 강의실과 연구실, 강당, 실무실습실, 동물사 등 연구와 교육을 위해 최적화된 공간으로 구성됐다. 2018년 9월에 착공하여 2020년 5월에 준공했으나 교박 1년 8개월이 걸렸다. 약학대학은 7월부터 이사를 준비했고 정들었던 구 건물과 작별했다. 그리고 8월부터 본격적으로 새 건물에서 연구가 시작했다.

김종오 약학대학장은 “10년 전 신축 얘기가 나온

후부터 구 약대 건물은 수리를 안 해 매우 불편한 상황이었다”며 “2020년 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안정화를 거친 후 새로운 환경에서 분위기를 일신해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축 건물에서 새 출발을 한 약학대학은 대형과제를 더욱 많이 수주해 영남대학교의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각오로 뭉쳐 있다. 실제로 약학대학의 약물개발연구소는 2000년대 중반 중점연구소로 선정됐고 기초연구실사업에도 선정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최근에는 4단계 BK21(Brain Korea 21) 사업에도 선정돼 대학원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으며 연구하고 있어 더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한 열기로 뜨겁다.

신축 건물 1층에는 10억 원의 발전기금을 쾌척한 제약회사 한국파마의 박재돈 회장의 호 ‘백담’을 딴 256석의 강당인 ‘백담홀’이 생겼다. 박 회장은 약학대학 1회 졸업생이다. 또 소규모 세미나실, 실습약국, 제약공장, 전산실, 국시준비실이 있으며 PBL(Problem Based Learning)홀 등이 들어선 소규모 토론식 수업이 가능해 학부생들이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학부 실험실도 첨단 환경으로 업그레이드돼 명실공히 대한민국 대표 약학대학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2022학년도부터는 약학대학이 6년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약학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약학대학의 새로운 건물 준공은 선제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영남대학교 약학대학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약사를 배출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과거에는 약국이나 병원의 약사를 배출하는 교육이었다면 이제는 임상, 복약지도, 약물치료 등의 교육을 강화해 사회 진출 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을 방대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실제로 바이오산업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는 제약 산업에도 앞으로 약학대학이 기여할 몫이 많다. 영남대 약학대학은 이 분야에 대한 교육을 더 많이 할



백담홀

애해 시, 머신러닝, 통계에 기반한 약학교육을 교육과정에 편성하고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 각 분야의 능력 있는 전문 교수, 연구자를 총원하고 초청하고 대학원생도 더욱 많이 선발해 새로운 마을으로 약학대학의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김종오 학장은 “그동안 대한민국 대표 약학대학으로 성장해 온 위상에 걸맞고 모든 동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약학대학을 만들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동문과 재학생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